

## World Federation Medical Education Global Standards의 교육과정 표준에 따른 한의학 교육 연구

이정혁<sup>1</sup>, 김병수<sup>1</sup>

<sup>1</sup>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생리학교실

### Screening of 56 Herbal formulas covered by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on Dementia-related Factors

Jeong Hyeok Lee<sup>1</sup>, Byoung Soo Kim<sup>1</sup>

<sup>1</sup>Department of Physiology, College of Korean Medicine, Daejeon University

**Objectives:** The aim of this study is to introduce the WFME Global Standards and Recognition process and to consider Improvement direction of Korean traditional medical curriculum.

**Methods:** To Investigate the Standards and Recognition process of WFME and the traditional medical curriculum of each country(China, Taiwan, Japan, Korea).

**Results:** The WFME Global Standards and Recognition process aims to train doctors who are educated and active in world standard medical Curriculum. The traditional medical colleges have not received recognition, but those colleges in Korea, China and Taiwan contain a lot of standards contents, and they need to be recognized if they belong to WDMS.

**Conclusions:** Korea University of Oriental Medicine has a lot of subjects of WFME Standards and there is a medical education recognition association, which is advantageous for the standardization process of world medical educatio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aim at world standard medicine while preserving the tradition of Oriental medicine, WFME Global Standards should be used to reorganize the curriculum and train a world-class medical professional.

**Key Words :** WFME, Global Standards, Korean Medicine Education, Medical Education, Curriculum

### 서론

2005년 제1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은 한의약의 과학화·산업화·세계화를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를 목표로 하였고, 2018년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제3차 한의약 육성발전종합계획은 한의약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통

한 세계화를 목표로 한 한약진흥재단의 운영,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 해외진출 촉진, ODA 확대, 국제브랜드 제고, 표준화 전략의 기획 및 실행, WHO의 전통의약 국제표준 제정 참여 등의 계획을 설정, 실행하고 있다<sup>1)</sup>. 이와 같이 한의학의 세계화는 현재 한의학의 중요한 과제 중 하나이다

· Received : 27 August 2018      · Revised : 11 September 2018      · Accepted : 11 September 2018  
· Correspondence to : 김병수(Byoung Soo Kim)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생리학교실  
Tel : +82-42-280-2616, E-mail : kbsoo25@dju.kr

그 밖에 한의계는 의료기기 사용, 천연물 신약, 첩약 급여화, 의료일원화 등의 여러 과제에 직면해있으며<sup>2)</sup>, 이러한 과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한의사의 의료인으로써의 위치 및 한국 한의학의 세계에서의 위상이 명확히 확립될 필요가 있다. 현재 세계 의학 교육은 World Federal Medical Education【세계의학교육연합회, 이하 WFME】에서 제시한 국제적 표준을 중심으로 각 국가의 지역적, 문화적 특성을 반영하는 체계로 통일되어가고 있으며, 개별 국가의 특성을 인정하면서도 결과적으로는 세계의 의과대학들이 일정 수준의 통일성을 갖춘 의학 교육 체계를 갖춰 세계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의료인을 양성하겠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를 공유하여 WFME의 관리 및 지원 대상이 되는 의과대학의 목록이 World Directory of Medical Schools【세계의과대학목록, 이하 WDMS】이다. 이 목록에 중국 중의약대학은 포함되어있으나 한국 한의과대학은 포함되어있지 않으며<sup>3)</sup>, 이로 인해 한국 한의과대학은 국제적 표준을 따르지 않는 의과대학으로 인지될 수 밖에 없다. 이는 장기적으로 한국의 한의학이 세계 의학의 표준에 포함된 중국의 중의학과의 경쟁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세계 의학의 흐름에 동참할 수 없는 고립된 상황에 빠져 각종 한의계의 직면 과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제시하기 어려운 환경에 처할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세계 의학의 흐름에 동참하여 한의학의 세계화 및 한의계의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회로 삼기 위해서는, 공신력 있는 의학 교육 관련 단체에서 세계 의학 교육의 국제적 표준을 어떻게 지정하였으며, 의학 교육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와 더불어, 전통의학, 그 중에서도 한의학이 의료의 한 축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 대만, 일본의 전통 의학을 포함한 의학 교육이 어떻게 국

제적 표준에 맞추고 있는지를 확인해야한다. 그러므로 본 논문에서는 WFME가 제작한 Global Standards에서 교육 과정 부분과, 한국, 중국, 대만, 일본의 전통 의학 교육 과정을 조사하여 한국 한의학 교육의 방향을 포괄적으로 제시해보고자 한다.

## 본 론

### 1. World Federation Medical Education【세계의학교육연합회】

WFME는 1972년 WHO와 the World Medical Association【세계의사회】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세계 의학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의학 교육의 기준 [Global Standard] 및 관련 데이터베이스의 확립, 의학 교육 인증[Accreditation of Medical School]을 위한 WFME Recognition Programme의 운영 및 각국의 의과대학 인증 과정 협조, WDMS의 운영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sup>4)</sup>. WFME의 목표 및 역할에 대한 세부적인 소개는 다음과 같다.

“WFME is the global organization concerned with education and training of medical doctors. WFME’s mission is to strive for better health care for all mankind; WFME’s primary objective is to enhance the quality of medical education worldwide, with promotion of the highest scientific and ethical standards in medical education. This objective is met through the development of standards in medical education, by the promotion of accreditation of medical schools, with the development of databases on medical education, through projects on the future of medicine and medical

1) Ministry of Health & Welfare and Related departments. “Third comprehensive plan for the development of Korean medicine”. Seajong:Ministry of Health & Welfare. departments., 2016:9, 97-103.

2) World Federation For Medical Education. 【Basic Medical Education WFME Global Standards For Quality Improvement The 2015 Revision】. Copenhagen:WFME. 2015:1-71

3) World Directory of Medical Schools <https://www.wdms.org/>

4) World Federation For Medical Education.【“About WFME - leaflet” Published by World Federal Medical Education. Ferney-Voltaire】. Copenhagen:WFME. 2017:1-2.

education, and through other publications and partnerships<sup>5),6).</sup>

WFME가 중점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세 가지 사업은 WDMS, Global Standards, WFME Recognition의 제작 및 관리이다. 각 사항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World Directory of Medical Schools 【세계의과대학목록】

WDMS는 세계 3000여개의 의과대학 목록으로, 각 의과대학의 구조 및 역사, 학제 및 조직 구성, 교과과정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이는 단순히 세계에 존재하는 의과대학들의 정보를 나열한 것은 아니다. WFME가 정의한 WDMS에 대한 서술을 보면 WDMS 등재 기준을 확인할 수 있다.

“The Directory lists all medical schools providing a complete or full program of instruction leading to a basic medical qualification, one that permits the holder to obtain a license to practice as a medical doctor<sup>7).</sup>”

등록된 모든 의과대학이 WFME Recognition Programme에 따라 인증 받은 것은 아니지만, WFME는 장기적으로 WDMS에 속한 모든 의과대학이 인증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국의 한의과대학은 2010년에 제외된 이후 재등록이 안 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한의과대학을 졸업한 한의사는 세계에서 인정하는 bachelor of medicine

[의학 학사] 또는 doctor of medicine[의학 박사]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되었다. 이는 한의사의 해외 진출 및 의료기기 사용, 의료일원화 등 한의계의 여러 현안에 대하여 불리한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한국의 한의과대학이 현대의학이 아닌 전통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라는 이유로 제외되었다고 보기에는 중국의 중의약대학이라는 반례가 존재한다. 이는 한국 한의과대학이 전통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라고 해도, WDMS에 재등재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 2) WFME Recognition, Accreditation of Medical Education 【WFME 의학교육인증】

의학교육인증은 의학교육과정과 그 과정을 수행하는 학교를 인증함으로써 의학교육 및 의료 수준의 발전을 추구하는 과정으로, 실제 의학교육인증은 WFME가 아닌 각 국가의 정부나 정부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단체가 수행하며, 이 단체는 WFME의 인정을 받아야한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 WFME에 의해 평가인증 기관으로써 인정받은 대표적인 인증기관이다<sup>8).</sup>

현재 WHO는 2020년까지 모든 국가가 의학 교육 기관을 위한 인증 과정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WFME는WHO의 목표를 위한 협력기관이다. 미국의 Educational Commission for Foreign Medical Graduates【외국 의과대학 평가 위원회, 이하 ECFMG】에서는 2023년부터 자국 내 의사로서 의료행위를 하기 위하여 면허를 받고자 하는 경우, WFME의 인정을 받은 평가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대학 또는 대학원의 졸업자로 제한하는 정책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이와 같이 의학교육인증을 받아야만 의사로서 활동할 수 있는 제한을 두는 경우는 더욱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5) “WFME는 의사의 교육 및 훈련을 위한 세계적 단체이다. WFME의 목표는 모든 인류를 위한 더 나은 의료 및 건강관리 체계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다. WFME의 첫 번째 목표는 가장 우수한 과학적이며 윤리적인 의학 교육의 기준의 개발을 통한 전세계의 의학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다. 이 목표는 의학 교육의 표준 개발 및 관련 자료 기반의 확대, 의과대학의 인증 장려, 의료 및 의학 교육의 미래 계획, 다른 공공기관 및 협력기관 등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6) World Directory of Medical Schools <https://www.wdms.org/>

7) 기본적인 의료인의 자격을 부여하는 완전한 교육 체계를 제공하며, 의사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모든 의과대학의 목록이다.

8) 한국한의학교육인증평가원은 대상이 WDMS 소속이 아닌 한의대이므로 포함되지 않았다.

### 3) WFME Global Standards [WFME 세계 (의학 교육) 표준<sup>9)</sup>] - “Educational Programme (교육 과정)”

WFME Global Standards는 세계 전문가들의 합의에 만들어진 의학 교육 및 의사 수련 시스템을 갖춘 의과대학 및 기타 의학 교육 기관의 교육 표준이다. Global Standards는 각 기관의 세부적인 교과과정을 지정하지는 않으며, 의학 교육의 질을 올림과 동시에 각국의 의학교육인증평가를 위한 안내서 역할을 한다<sup>10)</sup>.

이 표준은 의학의 과학적 기초와 근거를 제시하는 기초 이론과 이에 기반한 기초적인 임상 술기에 대한 교육 내용을 포함하며, 각 국가간의 사회 및 경제적 환경, 질병의 특징, 문화적 전통, 보건의료전달체계의 차이를 고려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WFME Global Standards의 학부생 표준은 9개의 평가영역과 이에 대한 35개의 평가 부문으로 구성되는데, 9개의 평가영역에는 Mission And Outcomes [사명과 결과], Educational Programme [교육 과정], Assessment Of Students [학생 평가], Students [학생], Academic Staff/Faculty [교수진], Educational Resources [교육 자원], Programme Evaluation [교육 평가], Governance And Administration [(대학의) 행정 및 운영체계], Continuous Renewal [지속적 개선]이 존재한다. 이 중에서 본문에서 다룬 내용은 교과 과정을 직접적으로 다룬 Educational Programme이다.

WFME Global Standards “Educational Programme”에서 제시된 의학 교육의 표준은 Fundamental Theory(기초 이론)과 Practice Of Medicine(임상 술기)에 대한 교육을 필수적으로 포함해야하며,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기초의학, 행동 및 사회과학, 임상의학 및 기본 임상 술기, 임상에서 의료

행위를 결정하는 기술, 의사 소통 능력, 전문의간 협력, 사회에서의 의사의 기여, 의료 윤리 등이 있다.

이에 따른 의학 교육은 “Scientific Method(과학적 방법)”에 대한 교육을 포함해야 하며, 이 교육은 분석적, 비판적 사고를 통한 그 원리의 이해, 이에 따른 의학 연구방법 및 근거 중심의학에 대한 내용을 포함해야한다<sup>11),12)</sup>. 이러한 관점 하에서, WFME Global Standard가 제시하는 의학 교육의 세 가지 대분류는 “기초 의학” “행동 및 사회과학, 의료 윤리 및 의료법규” “임상 의학 및 술기”이다. 교육 과정의 세부 사항 및 교과목을 정하는 것은 지역의 필요, 관심, 전통에 따라 각 대학이 정하는 것이다. Standards는 대략적인 개요를 제시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모든 과목을 일정 시수 포함해야한다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원칙에 따른, 세 가지 대분류에 대한 WFME Standard의 서술은 다음과 같다.

#### (1) Basic Biomedical Sciences [기초 의학]

기초 의학은 다음과 같은 과목을 포함한다.

The basic biomedical sciences would depending on Local Needs, Interests And Traditions include

anatomy【해부학】, biochemistry【생화학】,  
biophysics【생물학】, cell biology【세포생물학】,  
genetics【유전학】, immunology【면역학】,  
microbiology【미생물학】, molecular biology【분자생물학】,  
pathology【병리학】, pharmacology【약리학】,  
physiology【생리학】

생물에 관련된 과학 지식들로 이들은 임상의학의 기초가 된다. 중국의 기준에는 여기에 TCM 기초 이론이 포함된다<sup>13)</sup>.

9) WFME Global Standards의 내용은 다음 발간물의 내용을 정리하여 작성하였음; World Federation For Medical Education. [Basic Medical Education WFME Global Standards For Quality Improvement The 2015 Revision]. Copenhagen:WFME. 2015:1-71

10) World Federal Medical Education - Global Standards. <http://wfme.org/standards/>.

11) “The medical school must throughout the curriculum teach The Principles Of Scientific Method, Including Analytical And Critical Thinking, Medical Research Methods, Evidence Based Medicine”

12) World Federation For Medical Education. [Basic Medical Education WFME Global Standards For Quality Improvement The 2015 Revision]. Copenhagen:WFME. 2015:19

(2) Behavioural And Social Sciences, Medical Ethics And Jurisprudence [행동 및 사회과학, 의료윤리 및 의료법규<sup>14)</sup>] (이하 “의료 인문학”)

행동 및 사회과학, 의료 윤리 및 의료법규는 다음과 같은 과목을 포함한다.

Behavioural And Social Sciences Would - Depending On Local Needs, Interests And Traditions - Include

Biostatistics【생물통계학】, Community Medicine【지역사회의학】, Epidemiology【역학】, Global Health【세계보건】, Hygiene【위생학】, Medical Anthropology【의료인류학】, Medical Psychology【의료심리학】, Medical Sociology【의료사회학】, Public Health【공공보건의학】, Social Medicine【사회의학】

임상의 기본이 되는 기초 의학, 실제 진료에 적용되는 임상 의학과 함께 Global Standard의 중요한 세 축 중 하나로 제시된 것이 행동 및 사회과학, 의료윤리 및 의료법규. 한국식으로는 의료 인문학이라고 표현된 과목들이다. 이는 주로 의학이 어떻게 사회에 기여할 것인가, 어떤 위치를 차지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다.

(3) Clinical Sciences And Skills [임상 의학 및 술기]

임상 의학은 다음과 같은 과목을 포함한다.

The Clinical Sciences Would - - Depending On Local Needs, Interests And Traditions - - Include

Anaesthetics【마취학】, Dermatology【피부과학】, Diagnostic Radiology【진단방사선학】, Emergency

Medicine 【응급의학】, General Practice【일반 진료】 & Family Medicine【가정의학】, Geriatrics【노인의학】, Gynaecology【부인과학】 & Obstetrics【산과학】, Internal Medicine (With Subspecialities (세부과목을 포함한다)) 【내과학】, Laboratory Medicine 【진단검사의학】 , Medical Technology【임상 검사학】, Neurology【신경학】, Neurosurgery【신경외과학】, Oncology【종양학】 & Radiotherapy【방사선치료학】, Ophthalmology【안과학】, Orthopedic, Surgery【정형외과학】, Oto - Rhino - Laryngology 【이비인후과학】, Paediatrics【소아과학】, Palliative Care【대증치료】, Physiotherapy【물리치료】, rehabilitation medicine【재활의학】, Psychiatry【정신과학】, Surgery 【외과학】 (With Subspecialities(세부과목을 포함한다)), Venereology【성병학】 (Sexually Transmitted Diseases). [중국의 경우 TCM 및 중서결합과정이 포함된다.<sup>15)]</sup>

위의 임상과목들을 필수 과목을 중심으로 요약한 것은 다음과 같다.

Major Clinical Disciplines Would Include

1. Internal Medicine【내과학】 (With Subspecialities)
2. Surgery【외과학】 (With Subspecialities)
3. Psychiatry【정신과학】
4. General Practice【일반 진료】/ Family Medicine【가정의학】
5. Gynaecology【부인과학】 & Obstetrics【산과학】
6. Paediatrics【소아과학】

일반 진료 및 가정의학은 1차 의료에 해당한다. 이를 내과, 외과 등의 외과의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과목들과 동일한 위상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Local

13) Working Committee for the Accreditation of Medical Education, MOE, China. Accreditation Standards for Basic Medical Education in China - The 2016 Revision. Beijing: MOE China. 2016:10-14.

14)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ASK 2019에서는 이러한 과목을 “의료인문학”으로 지칭하였다.

15) Working Committee for the Accreditation of Medical Education, MOE, China. Accreditation Standards for Basic Medical Education in China - The 2016 Revision. Beijing:MOE China. 2016:10-14.

Needs, Interests And Traditions”라는 표현이 없는 것이 특기할 사안인데, 이 과목들은 WFME 산하 WDMS에 등록된 모든 의과대학들이 포함해야 하는 필수 과목이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4) Programme Structure, Composition And Duration [교육 과정의 구조, 구성, 기간]

수평통합과 수직통합의 개념이 등장한다. 수평통합의 예는 해부학, 생화학, 생리학과 같은 기초의학 과정 간을 통합하거나 임상의학 과목간의 통합이며, 수직통합의 예는 대사질환과 생화학 혹은 심장학, 심혈관 생리의 통합이다<sup>16)</sup>. 이는 곧 과목과 과목간의 연계, 기초와 임상의 연계, 진료실에서의 진료뿐만 아니라 사회 전반에 대한 기여를 위한 기초&임상 과목과 의료 인문학 과목과의 연계 등을 아우르는 개념이다. 또한 보완의학에 대해 소개하라는 내용도 존재하는데, 이 구분은 의과 대학의 전통의학 및 보완대체의학 과목 신설의 중요한 근거가 된다.

2. 전통의학이 의료 체계에 포함된 국가의 전통 의학 교육 및 인증 현황

세계의 의과대학의 교육과정 및 인증평가의 기준으로 쓰일 WFME Global Standards에 의거하여, 한국의 한의과대학이 세계 의학 교육의 표준에 따라 전세계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일차의료를 수행하는 한의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한다면 이 WFME Global Standards의 기준에 부합하는 교육과정 및 인증평가 과정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전통의학을 포함하고 있는 국가들의 의과대학이 어떻게 WFME Global Standards에 의거하여 교과과정을 편성하고 의학교육인증을 받고 있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세계보건기구는 전통의학의 수용유형을 다음과 같이 4가지로 구분하였다(Table 1).

Table 1. Accepting Types for Traditional Medicine<sup>17)18)</sup>

유형	특징
통합형	- 전통의학과 서양의학 통합 - 국가가 정책적으로 전통의학과 서양의학의 결합 지지
내포형	- 공식적으로 전통의학을 인정하여 서양의학과 병존 - 완전히 이원화된 의료서비스 제공체계
병존형	- 이중면하는 허용되나, 의료행위 시에는 하나만 선택
용인형	- 의술로는 전통의학이 수용되나 국가제도로는 비수용 - 일원화된 의료체계로서 전통의학은 서양의학의 한부분
배제형 독점형	- 전통의학의 불인정

1) 중국

(1) 중국의 전통의학 제도

중국은 의과대학과 중의약대학이 별도로 존재하지만, 의과대학을 졸업한 서의사의 중의 의료행위와 중의약대학을 졸업한 중의사의 서의 의료행위에 원칙적 제한이 없다<sup>19)</sup>. 그러므로 중의약대학의 교과과정 또한 의사로서 일차 의료가 가능한 정도의 수준의 교육이 마련되어야한다.

(2) 중국의 Standards 및 의학교육인증평가

중국은 교육부에서 의과대학평가인증위원회(Working Committee for the Accreditation of Medical Education, MOE, China. 이하 WCAME)를 운영한다. WFME Global Standard의 내용을 기본으로 한 Accreditation Standard를 통해 의학 교육 인증을 진행하고 있으며, 중국의 특성과 세계적인 기준을 모두 고려한 의학 교육 인증 체계를 2020년까지 확립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중의약대학은 이 기준에 따라 WCAME의 인증평가를 받지 못했다. 하지만 미국의 ECFMG의 예를 볼

16) Korean Institute of Medical Education and Evaluation. ASK 2019(Accreditation Standards Of KIMEE 2019). Seoul:KIMEE. 2019:19.

17) Moon OR, Kim EY, Shin EY, Kim HY, Cheon HR. A comparative Study on the Combined Oriental and Western Medicine(COVM) in Four Northeast Countries . Seoul:Korean journal of health policy and administration:13(2). 2003:1-22.  
18) Yoon GJ, Kim DS. 'Medical Unification Plan' for shared growth with modern medicine and traditional medicine in Korea. Seoul: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Affairs. 2013:52.  
19) Yoon GJ, Kim DS. 'Medical Unification Plan' for shared growth with modern medicine and traditional medicine in Korea. Seoul: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Affairs. 2013:53.

때, 중의약대학이 WDMS에 기재되어있고 미국의 의사고시를 볼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는 현재의 위상을 유지-강화하고자 한다면 WCAME에 따라 인증을 받거나, 별도의 중의약 인증평가기관을 WFME에 인정받아 인증평가를 진행해야만 한다.

### (3) 중의약대학의 교과목과 Standards 교과목 관련 내용과의 비교

북경중의약대학<sup>20)</sup>, 상해중의약대학<sup>21)</sup>, 광주중의약대학<sup>22)</sup> 천진중의약대학<sup>23)</sup> 4개 중의약 대학이 공통적으로 교과과정에 포함한 과목은 중의기초론, 중의진단학, 중약학, 방제학, 인체해부학, 생리학, 병리학, 약리학, 생물화학, 면역학, 미생물학, 조직학, 내경[중의고전], 상한론, 금궤요략, 온병학, 진단학기초, 중의내과학, 중의외과학, 중의부과학, 중의아과학, 서의내과학, 서의외과학 등이다.

WFME Global Standards에서 기초의학 과목으로 제시한 해부학, 생화학, 생물학, 세포생물학, 유전학, 면역학, 미생물학, 분자생물학, 병리학, 약리학, 생리학, 생물학 등을 비롯한 대다수의 과목이 존재한다.

의료인문학 과목으로 제시한 대부분의 과목이 존재하지 않는다. 만약 중국의 중의약대학들이 WFME Global Standards에 의거하여 교육 과정을 설립해야 한다면, 의료인문학 과목이 없는 것이 문제가 될 것이다.

중국은 예방, 공공위생, 건강증진 영역에서 중의약을 활용하는 것을 기본 정책 방향으로 두고 있으며, “治未病”의 개념을 도입하여 관련 사업을 통해 체질과 건강 상태를 진단하고 그 분석에 근거한 건강지침의 지도 및 전통요법에 따른 건강증진 및 건강회복, 예방을 진행하고 있다<sup>24)</sup>.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련 과목이 미진한 상황은 개선되어야한다.

임상의학 과목으로는 내과학, 외과학, 일반진료 및 가정의학, 정신과학, 부인과학 및 산과학, 소아과학 6개 과목을 가장 중요한 과목으로 제시하였는데, 내과학과 외과학은 서의학과 중의학이 모두 존재하고 부인과학과 소아과학은 중의학 과목이 존재하지만 정신과학 / 가정의학 과목은 존재하지 않는다. 일반진료 및 가정의학은 중의&서의진단학 및 다른 과목에 통합하여 다룰 수 있어도, 별도의 정신과학 과목이 없는 것은 문제의 여지가 있다.

중국과 후술할 대만의 중의사 교육을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다(Fig.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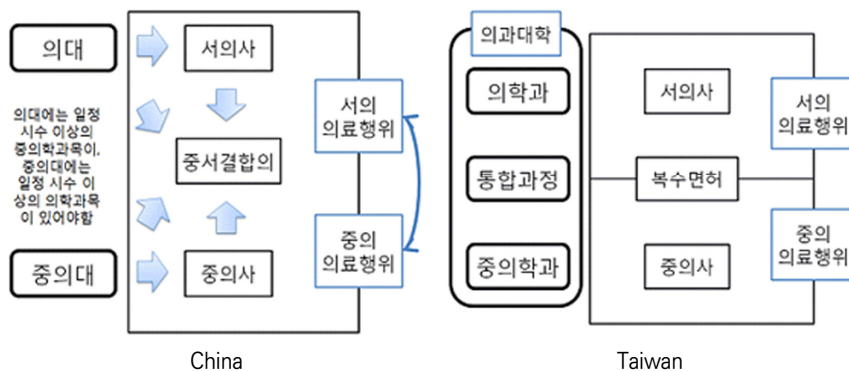


Fig. 1. Chinese and Taiwan medical education system including chinese medicine

20) Beijing University of Chinese Medicine, <http://iec.shutcm.edu.cn>  
 21) Shanghai University of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http://www.shutcm.edu.cn>  
 22) Guangzhou University of Chinese Medicine, <http://www.gzhtcm.edu.cn>  
 23) Tianjin University of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http://news13.tjutcm.edu.cn>

24) Lee EK, Song AJ, Jeong MS. “Review on Prevetive Treatment Disease Program promoted in China”. Seoul:Journal of Society of Preventive Korean Medicine, 2014; 18(2):47-58.

## 2) 대만

### (1) 대만의 전통의학 제도

대만은 세계보건기구 기준 내포형 혹은 병존형의 전통의학 수용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중의사가 별도로 존재한다. 이중면허는 가능하나 이중면허자라도 한 가지 의료행위만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한국의 한의사 제도와 상당부분 유사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대만과 한국의 차이는 중의학 교육 체계에 있다. 한국의 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은 별개의 대학으로 독립적인 체계를 갖추고 있지만, 대만의 중의학계 대학이 속한 중국의약대학, 장경대학의학원, 의수대학의학학군, 자제의학원 4곳은 의과대학 안에 중의학 과정이 포함되어 있는 형태로 이루어져있으며, 중국의약대학과 장경대학의학원의 경우 중서의 복수전공 과정 8년이 별도로 존재하여 중의사와 의사 면허를 함께 취득할 수 있게 되어있다<sup>25)</sup>.

### (2) 대만의 의학교육인증평가

대만은 Taiwan Medical Accreditation Council [대만의학인증위원회. 이하 TMAC]에 의해 인증평가 과정이 이루어지며, 이 과정 하에서 중의약 과정을 보유하고 있는 대학 중에서는 중국의약대학과 장경대학 의학원, 자제의학원이 인증을 받았으나, 이는 의약계 [의학과]에 대한 평가이지 중의약계에 대한 평가는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sup>26)</sup>.

추후 중의약계에 대한 인증계획 역시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다. 중국과 표면적으로는 동일한 상황이지만 실제로는 차이점이 있는데, 첫째로 중국은 의과대학과는 독립된 별도의 중의약대학이 다수 존재하며, 둘째로 중국의 중의약대학에서 양성하는 중의사들은 WFME의 대상으로 서의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의사로서의 자

격이 있고, 셋째로 중의약대학은 WDMS에 등록되어 5년제 과정을 졸업할 경우 서의대 5년제 과정과 동등한 “Bachelor of Medicine(의학학사)” 학위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비해 대만은 별도의 중의약대학이 없으며, 중의사들의 서의 의료행위가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다.

또한 별도의 중서의학 통합과정 8년과정이 있는 중국의약대학의 경우 2011년 기준으로 졸업생 71.1%, 장경대학의학원의 경우 졸업생의 71.9%가 의사-중의사 면허를 모두 취득하였고, 통합과정이 없는 의수대학 및 자제의학원의 졸업생을 포함하더라도 2011년까지 중의약 과정 졸업생 48.4%가 이중면허를 취득하였다<sup>27)</sup>. 즉 중의약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WDMS에 등록된 의대의 의학 과정을 거쳐 의사 면허를 취득하기 편리한 환경에서, 중의약계 단독의 인증평가를 추진할 요인은 부족한 실정이다.

## 3. 한국 한의과대학의 현황 및 향후 방향에 대한 고찰

한국의 한의과대학의 상황은 의과대학과 별개의 전통의학을 전문으로 하는 대학이 존재한다는 점에서는 중국의 중의약대학의 상황과 유사하며, 한의과대학 과정 단독으로는 의사 면허를 취득할 수 없다는 점에서는 대만의 중의약대학[의과대학 중의학계]의 상황과 유사하다. 두 국가와의 차이점은 세계에서 통용될 수 있는 의사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과정이 없다는 것이다.

WDMS에 등록되어 있는 의과대학들은 WFME의 Global Standards에 기반한 각 국가의 인증 체계에 따라 교육 인증을 받을 것이며, 이에 따라 의학 교육은 의료 인문학 분야가 없는 등 이와 관련된 분야에서 반드시 중국 중의학이 한국 한의학보다 앞서있다고 할 수는 없음 국제적 표준을 기반으로 하며, 각 국가 및

25) Yoon GJ, Kim DS, Kwon SH, Ahn BR, Kang AR, Yang GH. Current Situa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Chinese Medicine and Western Medicine in China & Taiwan and Implications: Focusing on Human Resource Development and Protection. Seoul:Korea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16:121.

26) Taiwan Medical Accreditation Council <http://www.heeact.edu.tw/mp.asp?mp=3>

27) Yoon GJ, Kim DS, Kwon SH, Ahn BR, Kang AR, Yang GH. Current Situa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Chinese Medicine and Western Medicine in China & Taiwan and Implications: Focusing on Human Resource Development and Protection. Seoul:Korea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16:124.



지역의 특징을 반영한 형태로 정립될 것이다. 추후 의사-한의사 면허를 하나로 통일하는 의료일원화의 가능성에 대한 대비 및 한의사의 해외 진출 및 한의학의 표준화 및 세계화라는 한의계의 당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국의 한의과대학 역시 이러한 추세를 따라가야 하지만, 현대 의학을 중심으로 설정된 WFME Global Standards를 무조건 수용하는 것은 또다른 교육 현장의 혼란과 더불어 현대 의학과 전통 의학 양측에 대한 전문성을 모두 상실할 수 있는 부정적인 측면 역시 존재하므로 이를 모두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한의과대학은 WDMS에 등재되지 못한 상황이지만, 한국한의학교육인증평가원이라는 국가가 공인한 별도의 인증평가기관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오히려 중국의 중의약대학보다 Global Standards에 따른 의학 교육 인증 과정을 진행하기에 더 수월한 점이 있다. 그러므로 한국의 한의과대학이 Global Standards에 근거하여 국제적 표준을 따르면서도, 전통 의학을 전공하는 한의사라는 직군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현대 의학 중심의 Standards만을 수용할 경우 발생할 부정적 측면을 방지하기 위해 한의계의 현황 및 미래 지향점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교육 과정을 재편하고 인증 과정을 수행한다면 세계 의학 교육의 흐름에 있어 중국의 중의약대학보다 앞서 갈 수 있을 것이다.

#### 4. 한의학 교육의 방향에 대한 제언

##### 1) 국제적 표준의 지향

현재 한의과대학의 교육은 前述한 기초 의학, 의료인문학, 임상 의학 과목 상당수를 이미 갖추고 있다(28,29) 부족한 점이라면 중국의 중의약대학에는 있는 외과 과목이다. “서의외과학”과 “중의외과학”을 모

두 갖추고 있는 중국과는 달리 한국의 한의과대학에는 외과 과목이 없으므로 별도의 신설을 요구된다.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한의과대학의 과목들, 특히 임상과목들이 실제 Global Standards에서 요구하는 과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냐는 것이다. 즉, 한의과대학의 내과학이 실제 Global Standards에서 요구하는 Internal Medicine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냐는 문제로, WDMS에는 등록된 경우가 있어도 WFME가 공인한 의학 교육 인증 기관에서 인증 받은 전통의학 대학이 전무한 현실에서 다른 사례가 없기 때문에, 이는 추후 한의계 전체가 고민해야 할 문제가 될 것이다.

현재 한의과대학의 임상과목 교과서는 현대의학적 질환에 대한 병리 및 증상, 이에 대응하는 한의학의 증상 및 변증논치의 구조로 되어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한방안이비인후과” 교과서에서는 이명[Tinnitus]의 현대의학적 정의, 증상, 분류, 대략적 치료 방안을 먼저 제시한 후, 한의학에서의 耳鳴, 관련 생리 및 병리, 변증론치를 제시하고 있다(30). 여기에 실제 현대의학의 관리법 및 Tinnitus retraining therapy(31)와 같은 치료법을 추가로 기입하거나, 향후 제작될 한의 표준 임상 진료 지침과 현대의학에서 사용하고 있는 임상 진료 지침을 추가하고, “일차의료의사의 진료 범위 정도의 현대의학적 임상 지식”과 “한방의료 지식”을 함께 다루고 둘을 최대한 연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교재를 재편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해볼 수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면서 국제적 표준에 맞춰 한의과대학 교육을 재편하는 것이 선결 과제가 될 것이고, 이는 추후 세계 의학 교육의 지향점에 맞춰서 한의학 교육 및 전반을 세계화하는 출발점이다.

##### 2) 현대화의 기반이 될 수 있는 한의학의 전통성을 고려하는 교육

한의학이 수 천년 전부터 활용되어온 전통의학이라는 특성을 갖추고 있으며, 이에 따라 현대 의학의 의약

28)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한의학과 과정 : 해부학, 해부학실습, [한방] 병리학, [한방]병리학 실습, 양생학, 양생학실습, 양방생리학, 본초학, 본초학실습, 원전, 보건의법규, 경혈학, 경혈학실습, 약리학, 약리학실습, 양방병리학, 처방제형학, 처방제형학실습, 양방진단학, 법의학, 상한론, 각기학실, 온병학, 예방의학, 사상의학, 종양학 간계내과학, 심계내과학, 비계내과학, 폐계내과학, 신계내과학, 침구학, 부인과학, 소아과학, 피부과학, 안이비인후과학, 신경정신과학, 재활의학과학, 추나학, 영상의학, 진단검사의학, 응급의학, 진단학, 사상의학

29) Oriental Medical College of Kyunghee University. [http://kmc.khu.ac.kr/html\\_2016/02/01\\_02.php](http://kmc.khu.ac.kr/html_2016/02/01_02.php)

30) Roh Seok Seon. Primary color ophthalmology and otolaryngology. Seoul:Seoul Printing Company,2012:416, 433, 485-92

31) By Robert E. Rakel, MD and David Rakel, MD. Textbook of Family Medicine, 9th Edition. New york:Elsevier. 2015:315

품 및 의료기술행위가 거쳐야 하는 검증 과정을 일정 부분 면제받을 수 있다는 점<sup>32)</sup>, 後述할 일본의 의과 대학 한방의학 교육 역시 전통 한의 이론에 대한 교육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은 한의과대학이 한의학의 전통성을 고려하는 교육을 시행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sup>33)</sup>.

일본은 전통의학을 전공하는 한의사나 중의사가 아닌 현대의학을 전공하는 의사가 한의학을 함에도 불구하고 전통 한의학에 대한 교육을 시행하고 있는 경우이다. 일본은 1874년에 한의사 제도를 폐지하고 서양 의학으로 일원화가 된 이래로 일본의 한의학은 현대 의학을 전공한 의사들에 의해 발전되어왔으며, 1967년 갈근탕, 오령산, 심미폐독산, 당귀작약산 4개의 의료용 한방제제 약가가 수록된 이후로 후생노동성에서 한약재 및 한약제제를 관리해왔다<sup>34)</sup>. 이와 같이 일본의 한의학은 별도의 면허 제도와 양성 기관은 없이 의사 단일 면허 체계하에서 발전해왔으며, 이를 세계보건기구의 전통의학 수용 4가지 중 용인형이라고 한다.

일본의 80개 의과대학은 모두 한의학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2006년부터는 모든 의과대학에서 8코마, 12시간 이상의 한의학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sup>35)</sup>. 일본의 한방의학 교과서에서는 음양설, 오행설, 장부설, 삼음삼양, 팔강[표리, 한열, 허실, 음영] 등의 전통 한의기초이론의 개념이 수록되어있으며, 약물의 처방에도 전통 한의기초이론의 내용을 활용한 임상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침구 치료에도 경락 학설을 이

용한 침구 치료에 대한 내용이 소개되어있다<sup>36)</sup>. 별도의 한의사가 없이 의사들이 한방 치료 행위를 수행하는 일본의 의대 교육에 전통 한의기초이론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 특기할 만하며, 이는 Standard의 “Describe The Interface With Complementary Medicine.”라는 내용과도 부합한다.

전통 한의학의 이론이나 경험이 현대의학 및 과학과 충돌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다수는 인체의 특정 현상을 과학적 지식이 부족하던 당시의 방식으로 해석한 것이 많으며, 경락학설 역시 현대 중국에서는 과학과 배치되는 것이 아닌 맥진과 침구 치료시의 인체의 반응점을 특정한 규칙에 따라 설정한, 실존하는 인체 생리 기능의 재배치라고 서술한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sup>37)</sup>. 이러한 전통 한의학 이론과 임상 경험에 대한 교육은 WFME Standards에 의거하여 교육과정을 재설정하더라도 소홀하게 여겨져서는 안 되는 부분이며 필요에 따라 그 시수를 줄이더라도 핵심 내용은 남겨져야 한다.

이는 陰陽五行, 藏象, 五運六氣 등으로 대표되는 전통 한의학 이론에 대한 교육과, 특정 증상에 특정 처방을 사용한 과거의 임상 기록에 대한 분석 및 실제 임상 사례에 대한 교육을 포함한다. 이를 위해서는 전통 한의학 이론이 실제 임상에 적용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연구와, 오랜 시간 동안 일정한 원칙에 따라 사용되어 온 과거의 임상 기록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다.

또한 前述한 WFME Global Standards의 “수직 통합”의 관점에서 전통 한의학 이론 및 과거의 임상 기록이 기초 의학, 의료 인문학, 임상 의학이라는 세 영역과 각각 어떻게 통합될 수 있을 지를 연구하여 이를 교육 현장에서 실천해야 한다.

예를 들어, 『傷寒論』의 “乾嘔 吐涎沫 頭痛者 吳茱萸湯 主之”라는 조문이 어떤 증상을 목표로 하였던 지를 분석한다. 이를 토대로 편두통이라는 신경과 질환에 吳茱萸湯을 처방하여, 편두통에 자주 쓰이는 염산 lomerizine과 비교하여 吳茱萸湯의 우수성을 평가하

32)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에서는 한약서(동 의보감, 방약합편, 향약집성방, 경약전서, 의학입문, 제중신평, 광제 비급, 동의수세보원, 본초강목 및 「한약처방의 종류 및 조제방법에 관한 규정」(보건복지부 고시)으로 정한 “한약조제지침서”에 수재된 처방에 해당하는 품목(처방량, 적응증, 복용법, 제조방법 등이 모호하거나 미기재된 품목인 경우 한약서 중 유사처방을 적용할 수 있는 품목) 및 해당하는 품목과 투여경로는 동일하나 제형을 달리하는 한약제제에 대해서는, 한약제제를 출시할 때 안전성, 유효성 시험 등을 면제한다고 되어있다.

33) 현대의학을 전공하는 의사들이 한방 의료 행위를 하기 위해서 전통 한의 이론에 대한 교육의 필요성을 인정했다는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34) Choi BR, Chao YJ, Son CG. “Study on the State of Kampo Medical Services in Japan”. The Journal of Korean Oriental Internal Medicine. 2014. Jul, 35(3): 309-316

35) Yoon GJ, Kim DS. ‘Medical Unification Plan’ for shared growth with modern medicine and traditional medicine in Korea. Seoul: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Affairs. 2013:80.

36) Japan Society for Oriental Medicine Academic Education Committee. [Oriental medicine textbook for professional doctor]. Tokyo: Nam gang dang: 2010:18-327.

37) Huang Ryong Sang. [China Acupuncture Academic history Outline]. Seoul: Beopin. 2007:214-426

고 추후에 편두통 치료에 활용하는 법<sup>38)</sup>을 교육하는 것은 『傷寒論』이라는 전통의학 교과와 신경과라는 임상의학 교과를 수직통합한 것이며, 또한 전통 한의학 이론 및 과거 임상 경험을 분석하여 현대의학에서 분류하는 임상 과목에 적용한 모범적인 사례이다.

### 3) 한의학의 현대화 및 표준화의 개념 정립과 교육과정에서의 반영

한외과 대학의 교육 과정의 “한의학의 현대화”와 관련된 내용을 논하기 전에, “한의학의 현대화”에 대하여 한국 한의학계의 일관된 개념의 정립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 정의가 정립되지 못한다면 “한의학의 표준화” 역시 불가능하다.

WFME Global Standards는 단지 현대적 의학 교육 과정의 표준화일 뿐만 아니라 의사로서 기본적으로 갖춰야할 소양의 표준화이기도 하다. 즉 현대화, 표준화된 의학을 교육받은 현대화, 표준화된 의사를 양성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는 “한의학의 현대화”와 “한의학의 표준화”의 중요한 지표가 될 것이다.

여기에 현대 의학과는 다른 전통 의학으로써의 한의학의 특성을 함께 고려한 “현대화”와 “표준화” 과정을 준비해야하고, “제3차 한의약융합육성발전계획”의 목표인 “한의 표준 임상 진료 지침” “안전성, 유효성을 검증한 한약제제의 활용” “한약재 표준화 사업” 등의 각종 한의약 사업의 성과<sup>39)</sup>가 즉각적으로 반영되어야 하며, 이후 이러한 교육의 내용이 향후 단기간 내에 한의 임상 과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 결론

현재 한국 한의학은 “표준화”, “세계화”를 지향하고

있으며, 그러면서도 “한의학의 특수성”을 별개로 인정 받아야하는 상황에 처해있다. 이는 세계 의학 교육이 각 국의 특수한 상황을 어느 정도 반영하면서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될 수 있는 “표준”을 따르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각 국의 외과대학이 이 “표준”을 잘 따르고 있음을 인증받아야하는 상황과 상당 부분 일치한다. 즉 한국 한의학과 세계 의학 교육의 진보 방향이 상당 부분 유사하다는 것이다.

한국 한의학을 전공한 한의사가 단지 대한민국의 의료인이 아니라 실제 세계에서 통용되는 의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WDMS에 재등록이 되어야하고, 이를 위해서는 WFME Global Standards에 의거한 의학 교육의 표준화가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이러한 표준화 과정이 얼마나 잘 진행되었는지 WFME에서 인증받은 의학 교육 인증 기관의 인증평가 역시 필요하다.

앞서 중국, 대만의 사례에서, 우리는 전통 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이 WDMS에 등재되거나, 전통의학을 전공한 사람이 WDMS가 인정하는 의대를 졸업한 의사가 될 수는 있어도 Global Standards에 의거한 Recognition 과정을 진행한 경우는 없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중국의 중의학 시장 및 중의약대학의 현황이 한외과대학보다 더 낮다고 하더라도, WFME Global Standards와 비교할 경우 한국 한외과대학에 존재하는 정신과학 및 의료인문학 분야가 부족함과 같이 한국에 비해 미진한 점이 있어 한국이 반드시 중국의 사례를 따를 이유는 없음을 의미한다.

선례가 없는 난점이 있으나, 한국은 별도의 한외과 대학 인증평가기관이 존재하고, 한외과대학의 교육 과정 상에 WFME Global Standards의 교육 과정 분야에서 제시한 “기초 의학”, “의료 인문학”, “임상 의학” 과목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는 점은 중의약대학을 능가하는 한외과대학의 강점이다.

그러므로 한외과대학이 WFME Global Standards 기준으로 교육 과정을 재편하고<sup>40)</sup>, 현재 추진되고 있는

38) EBM Special Committee of the Japanese Oriental Medical Association. Evidence-based oriental prescriptions. Seoul:KoonJa. 2011:148

39) Ministry of Health & Welfare and Related departments. “Third comprehensive plan for the development of Korean medicine”. Sejong:Ministry of Health & Welfare. departments.. 2016:42-46,

40) 이러한 교과 과정의 재편에 현대의료기기 사용, 의료 일원화, 천연물 신약의 사용, 일차의료 중심의 한의계 개혁 등의 현인과 이에 따른 변화를 모두 고려해야한다. 사실상 한의대에서 일차의료 가능한 “의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타당해보인다.

한의학의 표준화, 세계화에 대한 정책 결과 및 과학적 연구 결과, 전통 한의 기초 이론 및 과거 임상 기록에 대한 정리 등을 교육 과정에 빠르게 반영하여 세계 의학 교육의 표준을 지향함과 동시에 한의학적 전통성을 보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한국 한의과대학이 국제적 표준 의학을 준수하면서 한의학이라는 전통의학적 임상 의료를 함께하는 의료인으로써의 한의사를 양성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1. Ministry of Health & Welfare and Related departments. Third comprehensive plan for the development of Korean medicine. Seajong:Ministry of Health & Welfare. departments., 2016:42-46, 97-103.
2. World Federation For Medical Education. Basic Medical Education WFME Global Standards For Quality Improvement The 2015 Revision. Copenhagen: WFME. 2015:1-71
3. World Federation For Medical Education. About WFME - leaflet" Published by World Federal Medical Education. Ferney-Voltaire. Copenhagen: WFME. 2017:1-2.
4. Korean Institute of Medical Education and Evaluation. ASK 2019(Accreditation Standards Of KIMEE 2019). Seoul:KIMEE. 2019:19.
5. Working Committee for the Accreditation of Medical Education, MOE, China. Accreditation Standards for Basic Medical Education in China - The 2016 Revision. Beijing:MOE China. 2016:10-14.
6. Moon OR, Kim EY, Shin EY, Kim HY, Cheon HR. A comparative Study on the Combined Oriental and Western Medicine(COWM) in Four Northeast Countries. Korean journal of health policy and administration. 2003;13(2):1-22.
7. Yoon GJ, Kim DS. Medical Unification Plan' for shared growth with modern medicine and traditional medicine in Korea. Seoul: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Affairs. 2013:52-53,80.
8. Lee EK, Song AJ, Jeong MS. Review on Preventive Treatment Disease Program promoted in China. Journal of Society of Preventive Korean Medicine. 2014;18(2):47-58.
9. Yoon GJ, Kim DS, Kwon SH, Ahn BR, Kang AR, Yang GH. Current Situa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Chinese Medicine and Western Medicine in China & Taiwan and Implications: Focusing on Human Resource Development and Protection. Seoul:Korean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16:121,124.
10. Choi BR, Chao YJ, Son CG. Study on the State of Kampo Medical Services in Japan. The Journal of Korean Oriental Internal Medicine. 2014. Jul;35(3):309-316
11. EBM Special Committee of the Japanese Oriental Medical Association. Evidence-based oriental prescriptions. Seoul:KoonJa. 2011:148
12. World Directory of Medical Schools. Available at: URL:https://www.wdoms.org/.
13. World Federal Medical Education - Global Standards. Available at:URL:http://wfme.org/standards/
14. Beijing University of Chinese Medicine. Available at:URL:http://iec.shutcm.edu.cn
15. Shanghai University of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Available at:URL:http://www.shutcm.edu.cn
16. Guangzhou University of Chinese Medicine. Available at:URL:http://www.gzhtcm.edu.cn
17. Tianjin University of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Available at:URL:http://news13.tjutcm.edu.cn
18. Taiwan Medical Accreditation Council. Available at:URL:http://www.heeact.edu.tw/mp.asp?mp=3

(261) Journal of Korean Medicine 2018;39(3)

19. Oriental Medical College of Kyunghee University. Available at:URL: [http://kmc.khu.ac.kr/html\\_2016/02/01\\_02.php](http://kmc.khu.ac.kr/html_2016/02/01_02.php)
20. Huang Ryong Sang. [China Acupuncture Academic history Outline]. Seoul:Beopin. 2007:214-426.
21. Roh Seok Seon. Primary color ophthalmology and otolaryngology. Seoul:Seoul Printing Company. 2012:416, 433, 485-92.
22. Robert E. Rakel, David Rakel. Textbook of Family Medicine. 9th Edition. New york:Elsevier. 2015:315.

## ORCID

이정혁 <https://orcid.org/0000-0003-4238-2484>  
김병수 <https://orcid.org/0000-0003-0961-9427>